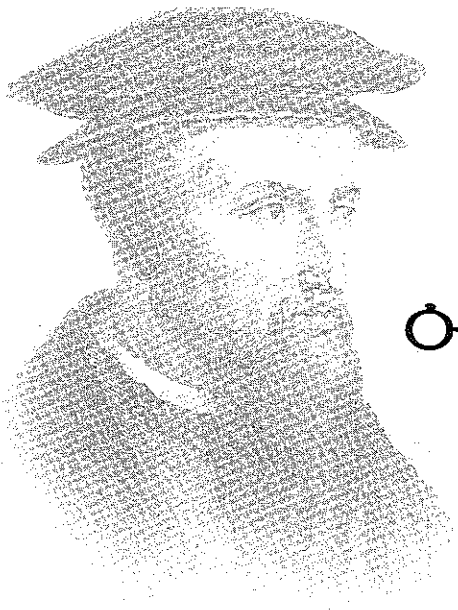


AUTHOR 이정숙

TITLE 켈빈이 그린 목회: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이

IN 목회와 신학

vol. 220 (October, 2007):188-196



켈빈이 그린 목회: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이

이 정 숙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회사 교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으로 한국 개신교 교회에 대한 말이 많아졌다. 물론 선교 정책이나 그와 관련된 여러 선교 양상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내친걸음에 개신교 전체를 바로 잡자는 기세로 너나 할 것 없이 일언을 더하니 개신교 선교 정책이 무자비하게 도마질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관련 일체가 방송 매체와 사람들의 입에 날마다 회자되는 형편이다. 이에 부응하여 교계 내부에서도 선교 정책, 세금납부 문제, 물량 정책 등에 대해 원로 회동, 성명 발표, 자성 기도회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를 보내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이리저리 착잡한 것이 사실이다.

과연 개신교 교회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약 500년 전 개신교 종교개혁자들

에게는 목숨을 건 질문이었다. 거대한 가톨릭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아무리 군주들이 그들의 뒤를 옹호하고 있다 하여도 겁나는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또한 가톨릭에 반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개신교 개혁 운동은 한 가지로 통일된 운동은 아니었기에 개혁자들의 부담은 더욱 컸을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에서 개신교 교회가 무엇이며,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는 결국 모든 개혁자들을 고뇌하게 한 최고의 질문이었음에 틀림없다고 본다. 더욱이 가톨릭교회와 차별성을 가진 새로운 교회를 목회를 통하여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1509년에 프랑스 노용(Noyon)에서 태어난 존 켈빈(John Calvin)은 교회와 깊은 관련을 맺고 태어났다. 16세기 유럽의 종교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시절에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 그

러나 칼빈의 경우 그의 아버지가 노용 시 주교청의 비서였던 데다가 그를 성직자로 키우고 싶어 하였기에 교회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일부였다.¹ 그는 아버지를 통해서 또 자신이 직접 교회를 경험하면서 당대의 많은 인문주의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톨릭교회가 신학적·실천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경과 신학적 전통을 인정하는 “참된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530년대 초에² 칼빈은 마르틴 루터나 츠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이미 시작해 놓은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여 개신교로 개종하였으며, 곧 개신교가 지향해야 할 신학적 명제들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집필 작업에 들어갔다.

1536년 초판 발행 이후로 여러 번에 걸친 개정 작업과 잇따른 불어 번역 작업으로 완성된 「기독교 강요」³는 단순 명료하며, 수려한 그의 문장력으로 개신교 신학의 정수를 다루고 있어 후대로부터 개신교 신학을 집대성했다는 평가와 칭송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칼빈의 위대성을 그가 신학자였다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칼빈의 진면목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칼빈 학자인 장 다니엘 베노이(Jean-Daniel Benoit)는 “칼빈은 먼저 목사였고 그 다음에 신학자였다. 혹은, 더 정확히는, 그는 목사가 되기 위한 신학자였다”고 말했다.⁴ 그는 비록 강령에 의해 시작하긴 했지만 제네바 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합류하여 제네바 시를 개혁의 모델 도시로 정착하고, 당시 유럽 여러 지

역의 개신교 운동이 활성화되고 정착되는 데 결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였다.

종교개혁 490주년을 맞아 개신교 교회의 모습에 대해 현재의 상황만을 들여다보지 말고, 과감하게 원래로 돌아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과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목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염두에 두고 칼빈의 신학과 제네바 목회를 재구성해 보자. 분명 그의 해안이 담긴 신학과 탁월한 실천력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충실하면서도 현실 상황을 잘 소화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교회를 그리며 목회를 구상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게 해 줄 것이다. 본 호에서는 칼빈의 교회 이해, 목회의 본질과 직분 등을 다루고, 다음 호에서는 칼빈의 종합적인 제네바 목회를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교회란 무엇인가⁵

교회에 대한 칼빈의 이론적인 생각은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 즉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1541년에 발표된 「교회 법령」(Church Ordinance)에서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드러난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드러난다. 법령에 근거하여 그가 어떻게 목회하였는지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컨시스토리 기록이나 그의 설교, 당시 기록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우선 그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보면 이렇게 시작된다.

“복음에 대한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는 우리

의 것이 되며, 우리는 그에게서 주어지는 구원과 영원한 축복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을 전권(3권)에서 설명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무지와 게으름으로 인해(여기에 나는 본성의 연약함을 첨가한다) 우리 안에 신앙이 태어나 성장하고,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외적 도움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시고 그 도움들을 첨가하셨다. 그리고 복음의 선포가 번창하도록 교회 안에 이 보물을 저장한 것이다.”⁷

기억 상기자로서의 역할

캘빈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예 우리의 것이 되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질과 내용은 고귀하고 풍성하기 그 지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연약하고 게으른 탓에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일상화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수단들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이다. 이 도움의 수단들은 말씀과 성례전과 같은 것들인데,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형편이 이전과 다르게 된 자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자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기억 상기자(reminder)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상에 사는 동안 성도들은 끊임없이 솟구치는 죄악인 본성과 싸워야 한다. 우리가 죄악인

본성과 싸울 바로 그때 교회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왜 죄악인 본성과 야합할 수 없고 싸워야만 하는지를 상기시켜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성령이 내적으로 기억 상기자의 역할을 한다면(요 16:8) 교회는 외적으로 기억 상기자의 역할을 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체질을 잘 아시고 적절하게 인간의 눈높이에서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캘빈은, 교회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는 즉시로 필요해진 것이며, 인간의 역사가 종결할 때까지 존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⁸

1. 어머니로서의 교회

캘빈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어머니가 된다고 말한다. 그는 가톨릭교회가 사용해 온 이 표현을 전혀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 됨은 이미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3세기에 순교한 키프리아누스(Cyprianus/Cyprian)는 “교회를 자신의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He can no longer have God for his Father who has not the Church for his mother)라고 말했다.

어거스틴 역시 그의 참회록과 다른 저작들에서 교회를 ‘어머니’로 은유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특히 참회록에서 그는 모니키를 육적인 어머니로, 교회를 ‘영적인 어머니’로 대칭하기도 한다. 교회가 어머니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대구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1차적 존재로서 이해되어진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의

참된 '교회의 표지'가 되는 두 가지는 말씀과 성례전이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시행될 때

교회는 참 교회가 되는 것이다.

양육 책임론이 더욱 중요시해진 작금의 현실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가 가진 1차적 참여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어머니로서의 교회 묘시는 의미가 있다.

캘빈은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것은 어머니가 "우리를 태속에서 잉태하고, 낳고, 그의 젖 가슴으로 우리를 기르고, 마침내 우리가 죽을 몸을 벗어버리고 천사와 같이 될 때까지(마 22:30)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갈 다른 길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⁹ 또한 그는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누구도 죄 사함이나 구원을 소망할 수 없다", 또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은총과 영적인 생활의 특별한 증거는 교회의 무리들에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항상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다"¹⁰고 덧붙인다.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한 것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신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21세기를 살면서 우리가 화두로 삼고 있는 '여성성의 계발', 또 더 나아가 '여성성과 남성성의 조화로운 공존'을 생각하면 오늘 개신교 교회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의외로 많을 수 있다. 어떤 캘빈 학자는 한국 교회의 현재 문제점들은 교회가 어머니 됨을 잘 묵상하지 못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전도나 양육은 교회가 가진 어머니적인 기능, 즉 출산과 양육의 양면적 내용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그 방법 면에서 한국 교회는 남성 문화적

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기 일쑤라는 점이다.

모성의 미덕은 빨리 해치우기보다는 시간을 가지며 대처해 가는 인내와 배려가 있고, 수용자의 입장으로 자신을 맞추어 가는 보살핌에 있다고 하겠다. 아무리 엄마가 바빠도 태중의 아이를 예정보다 일찍 나오게 할 수 없으며, 급한 일이 있다고 젖 먹는 아이를 재촉해서 수유 시간을 단축하기는 어려운 것이 모성이 경험하는 지혜이다. 한국 개신교 교회가 "공격적이다", "몰량 공세가 심하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등 자타의 지적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캘빈이 교회를 어머니로 표현하면서 자칫 지상 교회를 절대 이상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할 수 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가 가진 제도적·조직적 불합리성이나, 부패 가능성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으로 교회를 부정했다. 대부분의 우리들 역시 교회를 믿고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한 비판과 근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지상 교회는 절대적으로 기록하지도 완전하지도 않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캘빈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 절대적인 확신은 무엇인가? 도나티스트(donatist)들과의 논쟁에서 어거스틴이 분명히 한 것처럼 성례전을 행하는 사람은 성례의 효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례전을 베푸는 수단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 자체로 구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캘빈의 초상화와 제네바의 풍경이 새겨진 은메달

의 구원을 전하고 그 구원을 돈독하게 해 주는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교회의 이러한 도구적 기능은 각종 유혹 속에서 성도의 삶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을 가진 성도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교회의 이러한 도구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두 가지 도움의 수단을 주셨는데 그것은 말씀과 성례전이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성례전이야말로 교회를 참으로 교회되게 하는 표지가 된다는 것이다. 참된 교회의 표지(notae ecclesiae)¹¹가 되는 두 가지는 말씀과 성례전이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시행될 때 교회는 참 교회가 되는 것이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기 위하여 캘빈은 목회자들의 심사를 엄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고, 교인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였다. 실제로 제네바에서 예배를 '설교'(sermon)와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은 개신교 교회가 말씀을 중시하는 참 교회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하는 예라고 하겠다.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례전은 보이는 말씀이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을 성례전으로 받아 들인 개신교 개혁자들은 성례전이 가톨릭교회와 달리 구원을 완성시키는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시사각각 은혜를 필요로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는 중요한 영적 양식으로 이해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으로 교회의 기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올바르게 성례전을 행하는 것은 교회의 1차적 책임이다. 그러나 교회는 더 나아가 성도

들이 말씀을 바로 받도록 도와야 하고, 성례전에 정기적으로 거리낌이 없는 바른 자세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울 때 참된 교회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캘빈은 1541년 제네바에 재입국하면서 컨시스토리(Geneva Consistory)¹²의 설립을 주장하였고 컨시스토리를 통하여 참된 교회의 표지가 참된 '성도의 표지(notae fidelium)'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캘빈이 주장한 성도의 표지는 '신앙 고백', '삶의 모범', '성례전의 참여'¹³이다. 컨시스토리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는 다음 호에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다.

2.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머리를 모시는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이다. 캘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약의 비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은 연합되고, 한 머리에 속하여 한 몸을 형성하며 서로를 몸의 지체들로 여기며 결합한다고 말한다.¹⁴ 그리스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 머리를 모시는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이다.

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교회는 그리스도만의 지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지시는 설교를 통하여 오는 것이다. 켈빈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의 지시와 가르침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¹⁵ 권위주의는 배격해야겠지만 권위에 대한 존경과 순종은 일상생활에서나 영적인 생활에서 보편적인 원칙이라는 것이다. 또 그는 고린도전서 12장 주석에서 교회가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로 되었다는 것은 자칫 비교의식으로 인한 질서, 교만, 사악함, 지나친 간섭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지체들은 공동의 유익을 생각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것이 결국 몸 전체를 살리는 것이며, 당연히 각 지체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 직분자의 적절한 배치와 활용

한 몸의 다양한 지체는 제네바교회의 4중 직분을 이해하고, 그 직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제네바 「교회 법령」은 4중 직분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직분이 담당할 일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직분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¹⁶인데 켈빈은 이를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정치를 위하여 세우신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질서 있게 또 전체를 잘 유지하려면 우리는 교회의 정치

형태를 잘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켈빈이 이와 같이 교회의 4중 직분을 정의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1절,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디모데전서 3장 등에 근거하고 있다. 교회 법령에 근거하여 4중 직분을 살펴보자.

1. 목사의 직분

앞서 말한 것처럼 목사는 참된 교회의 표지를 지켜 가야 할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기에 켈빈은 이에 대해 다른 직분보다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므로 목사는 심사를 통하여 신중하게 뽑을 것을 말하고 있다.

중세 가톨릭교회와 달리 종교개혁자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의 직업도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 vocation)¹⁷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개신교의 목사직은 성직이 아니라 전문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고 본다.

목사는 평신도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수 있는 적절한 훈련을 받은 자들이란 점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목사가 교회에서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은 다음의 3가지 책무를 감당하는 자라는 것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공적·사적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필요한 경우에 나무라고 책망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성례전을 행하고, 세 번째로는 장로들과 함께 형제를 훈련하고 권징하는 일을 맡는다. 이 책무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켈빈은 이

일은 소명 없는 자가 맡을 수 없고, 교회는 목사를 선택할 때 그를 심사하여야 하고, 목사직에 임명하면서 적절한 예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1) 심사

목사를 심사하는 것에는 두 부분이 있다. 하나는 그의 교리 혹은 신학을 점검하는 것으로, 후보자가 성경에 대한 건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의 소통(communication)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것이다. 즉 목사는 일차적으로 말로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교도하는 데 적합한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다. 이런 기본 자질 심사는 단순한 인터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목사 후보자에게 교회가 인정할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준하여 가르치고 살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소통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질문을 해 보고 그가 가르치는 것을 먼저 들어보아야 한다. 그 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좋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 비난 받을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심사를 거친 후보자는 시의회에 보고되고, 시의회에 의해 임명되고, 시의회에서 선서를 하고 목사로 일하게 된다. 제네바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의 개신교 도시들은 시의회가 목사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었다.

2) 견제기능

캘빈은 목사들이 건전한 교리와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적절한 견제기능이 필요하데 그것의 방안으로 목사회를 생각했다. 제네바 시의 목사회(The Company of Pastors)는 컨시스토리와 달리 성경공부를 하고, 목사들

과 교회들 간에 관계된 제반 문제들을 상의하였다. 제네바와 인근 지역의 목사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이 목사회를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목사가 불건전한 교리를 갖거나 혹은 가르치거나, 또 개인생활 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 제네바교회는 이 면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목사가 범할 수 있는 각종 잘못과 악의 종류를 열거하고¹⁸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매 3개월마다 자신들이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지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2. 교사의 직분

두 번째 직분에 해당하는 교사는 복음의 순수성이 무지함이나 잘못된 견해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교사들은 혹은 목사에 의해 교리가 잘못 가르쳐질 가능성이 있음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교리”(the doctrine of God)를 지키는 도구, 즉 ‘학교’에 소속된다. 1559년에 세워진 제네바아카데미는 바로 건전하고 정상적인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교사들은 이곳에서 성경과 함께 언어, 인문 과목들을 가르침으로 목회와 시 정부에서 일할 일꾼들을 준비시켜 주는 역할을 맡는다. 제네바아카데미는 다음 호에서 제네바교회의 종합적 목회와 연결하여 더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3. 장로의 직분

세 번째 직분인 장로는 제네바의 경우, 현재 우리의 상황과 매우 다르다. 당시 제네바는 기독교 도시였기 때문에 장로는 교회의 직분이지만 또한 시의회의 의원으로, 정치인이기도 하였다. 장로는 평신도의 대표이다. 캘빈의 교회 내 정치는 소위 대의민주제 혹은 귀족적 민주제¹⁹에 의해 이루어졌다. 장로는

캘빈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공동의 어머니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하 고위를 막론하고 공동의 유익,
즉 구원의 온전한 나타남을 위하여 연합해야 됨을 말했다.

그 책무 상 교회 성도들이 혹 어떤 잘못을 행하지는 않는지,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이를 컨시스토리에 보고하여 적절한 권면과 징계를 받게 하는 것이다. 장로를 선출하는 방식은 지금과 달리 시의회 의원으로 뽑힌 자들 중에서 선택했다. 당시 시의회 의원을 뽑는 사람들은 결국 교인들이고, 교회와 시의회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사회이다 보니 굳이 교회에서 다시 평신도 즉 시민의 대표인 장로를 뽑는다는 것은 낭비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장로의 자격은 성경에 명시된 대로 선한 생활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나무랄 것이 없고, 의심받을 것이 없는 자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영적 신중함의 은사'를 가진 자라야 한다. 일단 장로가 되면 교인들을 돌아보고 매주 컨시스토리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도 하고, 다양한 혐의나 문제에 의해 상정된 사건이나 안건들을 목사들과 함께 처리하고 필요하면 시의회로 의뢰하기도 하였다. 장로들은 매 해 말에 그들의 사역의 효율성에 의해 재임되기도 직무 해제되어 타인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장로를 새로 선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보았다.

교단에 관계없이 장로 직이 발달된 한국 교회에서 장로직이 향존직인가, 임시직인가에 대해 가끔 팽팽한 논의가 오간다. 또한 장로와 목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는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곤 한다. 만약 우리가 캘빈식의 제네바교회의 장로정치를 더 존중한다면 무엇보다 목사와 장로의 동역(collegiality)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목사나 장로는 그 사역의 효율성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듯하다.

4. 집사의 직분

마지막으로, 집사직이 있다. 교회 법령은 초대교회부터 집사직은 두 종류였다고 본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물자를 받고, 나누고, 보관하는 직무를 행한다. 이 직무는 단순하게 일상의 필요를 채우는 구체 정도가 아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득, 연금 등까지 관리하는 자이다. 두 번째 종류의 집사는 병자들을 돌보고 빈자들에게 구제금을 적정선에서 나누어 주는 자이다. 디모데전서 3장에 근거하여 두 종류의 집사 직무에 합당한 사람이 뽑히면 이들은 제네바 병원에서 일하게 된다. 이 병원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치료소가 아니고, 사회복지센터와 같은 곳이다.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들, 심지어는 여행객까지도 돌보는 곳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를 시와 교회가 함께 맡음으로써 제네바는 거지 행위, 특히 교회 앞에서 행해지는 구걸 행위가 도시 전체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 애썼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교회 직분에 대한 이상의 정리는 교회 법령을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다. 캘빈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공동의 어머니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하 고위를 막론하고 공동의 유익, 즉 구원의 온전한 나타남을 위하여 연합해야 하고, 교회의 다양한 직분자들은 각자 책무를 행하되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사람들을 품고 적극적으로 바른 말씀과 성례전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으로 성도들을 양육 지도하고 섬길 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다음 호에서 칼빈의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실제화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을 기약하며, 이 땅의 교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를 빈다. <X>

이 정 숙 이화여자대학교(B.A.)를 나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M.Div.), 미국 드류대학교, 프린스턴신학교(Ph.D.) 및 한국성서문화연구원(Post-doc)에서 공부했으며, 지금은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회사 교수로 있다.

주(註)

1. 유명 종교개혁자들의 전기가 그렇듯이 칼빈의 전기(biography) 역시 계속적으로 새롭게 쓰이고 있다. 번역서로는 파커(T. H. L. Parker)의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 부스마 (Williams J. Bouwtsma)의 「칼빈」이 있고, 국내 저작으로는 이양호의 「칼빈, 생애와 사상」을 추천한다.
2. 칼빈은 그의 회심에 대하여 "갑작스런 회심"(sudden conversion)이라고 그의 시편 주석 서문에서 쓰고 있다. 그 시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1529년부터 1534년까지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또 그가 갑작스런, 혹은 '돌연한'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진적인 회심이었다는 것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3. 「기독교 강요」는 1536년 라틴어 초판에 이어 1559년 최종판이 나오기까지 1539년, 1541년, 1543년, 1550년판이 있었고, 1541년 불어판으로 시작하여 1560년 불어판이 나오기까지 그 내용이 개정 증보되었고, 두 가지 언어로 쓰여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
4. John Leith,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A Way of Being the Christian Community* (Atlanta: John Knox Press, 1981), 85 쪽에서 재인용.
5. 제네바에서 이미 목회를 시작한 파렐(William Farel)은 칼빈이 제네바에서 머물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그를 찾아가 제네바에서의 동역을 강권하였다. 칼빈이 매우 망설이자 그에게 이 일을 돕지 않고 조용한 학자의 생활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거의 위협조로 말하여 칼빈의 동의를 얻어내었다.
6. 본 글에는 교회에 관한 논의는 칼빈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논의를 생략하고 보이는 교회, 즉 지상 교회에 집중한다.
7. *Institutes to Christian Religion* (이하 *Institutes*) IV, i, 1.
8. 칼빈의 창세기 주석, 시편 주석 등에서 교회가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 가정을 가지면서부터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기독교 강요」4:17에서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9. *Institutes*, IV, i, 4.
10. *Ibid.*
11. *Institutes*, IV, i, 9~12.
12.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서기와 소환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당회 혹은 장로회, 교회 법원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이러한 명칭이 16세기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독특한 구성과 기능을 잘 설명하지 못하기에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를 굳이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제네바 컨시스토리로 부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13. *Institutes*, IV, i, 8.
14. *Institutes*, IV, i, 2.
15. *Commentary on Epistle to the Ephesians*, 4:12.
16. 교회법령 1537년판의 번역은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translated by J. S. K. Rei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에 있고 1541년판은 *The Register of the Company of the Pastors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edited and translated by Philip Edgcumbe Hughe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6)에서 볼 수 있다.
17. 직업에 해당하는 vacation은 라틴어 *vocatio*에서 온 것으로 영어로 calling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를 소명이라고 하여 중세 가톨릭교회는 성직자의 부르심에 한정시켰다. 그러나 루터 이후로 개혁자들이 평신도들의 건전하게 유지하는 모든 직업에 대하여 소명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18. 목사들이 범할 수 있는 각종 잘못과 악 중에 용납될 수 없는 것과 책망하고 참아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이단, 분리(파당), 교회 기존 제도에 반역, 신성 모독, 성직 매매나 뇌물 수수, 다른 직위를 찬탈하려는 계략, 공식적 허락 없이 교회를 떠나거나 소명을 저버리는 것, 배신 혹은 위약, 위증, 간통, 절도, 음주,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폭행, 고리대금,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스캔들이 될 만한 게임 행위, 댄스나 비슷한 류의 방종, 파렴치한 위반 혹은 범죄 행위 등이 있다. 반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스캔들을 일으킬만한 이상한 성경연구 방법론, 성경을 읽는 데 게을리 한 것, 아침과 연관된 악을 책망하는 데 게을리 한 것, 직책과 관련하여 태만한 것, 저속한 농담, 속임, 중상, 비방, 방탕한 언어, 무분별하고 경솔함, 악한 계교, 탐욕과 인색함,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 요란함과 말싸움, 옷차림이나 행동거지가 목사에게 어울리지 않게 방종할 때 등이다.
19. 장로를 통한 교회 정치의 '대의적 민주주의'는 16세기 당시 재세례파들과는 달리 평신도 전체가 교회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대표인 장로가 전체 교인의 뜻을 대표하는 제도이다. 이양호는 장로를 "귀족적 평민"이라고 부르고, 교회의 장로정치 형태를 "귀족적 민주주의"라고 한다.